

혈구탐식증후군을 동반한 코의 혈관중심위 림프종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치료방사선과학교실*,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한지연·이복근·정수미*·김민식**·문한림
홍영선·윤세철*·김훈교·조승호**
이경식·서병도**

배 경: 혈관탐식증후군은 고열, 범혈구감소증, 간비장종대, 림프절비대 및 혈액응고장애 등을 동반하는 전신적 질환으로 대부분 면역억제 상태에서 바이러스 및 각종 병원체의 감염에 의해서 유발되고 예후가 불량하다. 조직학적으로 림프세망기관의 조직구의 증가와 혈관탐색현상이 빈번히 관찰되고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 악성조직구증식증과의 감별이 어렵다. 코의 혈관중심위 림프종은 거의 일정한 Epstein-Barr 바이러스(EBV) 양성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고 병의 경과중 혈관탐식증후군이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이는 EBV감염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보아지고 있다.

목 적: 연자들은 최근에 코의 혈관중심위 림프종으로 진단 받고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실시하여 완치관정을 받았으나 약 6개월만에 혈구탐식증후군이 발생한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과거에 코의 혈관중심위 림프종으로 진단 받았던 환자 중 혈구탐식증후군의 임상적 증상을 동반하였으나 악성 조직구증가증으로 진단되었던 환자들의 병과기록 및 조직검사소견을 검토하여 혈관중심위 림프종에 동반된 혈구탐식증후군인지를 다시 판단하여 향후 감별진단에 도움을 얻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5년 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강남성모병원과 성바오로병원에서 코의 혈관중심위 림프종으로 진단 받았던 환자 중 병의 경과 중 혈구탐식증후군을 동반하였던 환자 3명을 대상으로 조직적소견과 병과기록을 토대로 검토하여 코의 혈관중심위 림프종에 동반된 혈구탐식증후군의 임상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결 과: 22명의 환자중 3명에서 혈구탐식증후군의 소

견을 보였고, 진단당시 병기는 제 1기 1명, 제 2기 2명이었다. 2명은 방사선 단독요법으로, 1명은 복합항암화학요법(CHOP)으로 완치되었고 3개월, 6개월, 그리고 3년만에 고열, 범혈구감소증, 간비장종대, 출혈경향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에 진단 받았던 2명은 골수조직검사상 조직구의 증가와 혈구탐색현상의 증가로 악성 조직구증가증으로 진단되어 1명에서 복합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나 10일만에 폐혈증으로 사망하였고, 1명은 적극적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하여 소실되었다. 최근에 혈구탐식증후군으로 진단된 1명은 적극적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하여 경과관찰 중이다. 골수조직검사상 조직구의 증가와 조직구의 혈구탐색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악성 조직구 소견은 보이지 않아서 악성조직구증과 감별할 수 있었다.

결 론: 혈구탐식증후군은 코의 혈관중심위 림프종의 혼합 합병증으로 불량한 예후를 보인다. 임상적 양상 및 조직학적 검사상 악성 조직구증가증과 유사한 소견을 보여 감별이 어렵고,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므로 치료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코의 혈관 중심위림프종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EBV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보아지고 있으며 치료의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 병인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비인강암의 두개 기저골 및 국소 재발시 정위적 방사선 분할 치료(Fractionated Stereotactic Radiation Therapy : FSRT)의 적용

삼성의료원 치료방사선과, 이비인후과*
안용찬·최동락·김대용·허승재
백정환*·추광철*

목 적: 두개 기저골을 포함하는 국소에서 재발된 비인강암의 재치료 방법으로서 정위적 방사선 분할 치료를 적용하여 그 임상 경험을 보고한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9월부터 1996년 8월 사이에 비인강암의 두개 기저골 및 국소 재발로 삼성의료원 치료